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능력 개발로 미래를 개척하는 고급 인력들의 구성체
가들도 그야말로 ‘비전있는 회사’라고 일컬을 모양이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주주가 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매사가 의욕적이고 아심만만하며 원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꾸준히 도전하고 연구·노력하는 성실성을 잃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77년 동방화학 설립으로 출발하여 83년 3월 (주)동방으로 법인화되면서 기획부는 탄생했다.
그 후 대양축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종 세미나 개최는 물론 양축농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 왔다.
특히 어느 한 분야의 신제품을 개발하면 한방면은 동물약품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한다는 점과 많은 종류의 제품 보다는 몇가지 제품만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실수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깥에서의 평가.
현재 총 17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의 매출목표액은 4억.
두우기 축산업계 특히 동물약품 업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다산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다시 모방하여 개발, 담평을 초래하는 문제를 과감히 탐색하여 품질 향상과 적정적인 제품생산에 전력투구하는 점도 찬란할 만한 점이다.
현재 양계분야의 제품은 린스마이신(천개제), 주사제, 수용산, 린코마이신(천개제), 네오마이신(천개제) 등이 있으며 린스마이신은 항생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0여개 동물약품 회사중 꼭 절요한 사명 35명으로 구성된 (주)동방.
그중에서도 (주)동방의 Brain(뇌)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기획부.
김현주 대리, 이황희 주임, 박정호 연구원, 그리고 김유선씨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 그 역할을 이길게 연출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김현주 대리.
수의학을 전공한 그는 고급 인력을 과감히 채용하고 전국적인 영업이벤트를 획기적인 회사로 여겨졌다(주)동방과 인연을 맺었다고.
가무정감하며 건강이 넘치는 체격과 형상에 별로 남성 없고 본위기가 막막하게 느껴져 약간의 위기감을 주기도 하지만 신속·정확하고 매사에 양심이 없는 일처리로 독재자(?)라는 말까지 들지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이 충실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기획부의 대장답게 긴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황희 주임.
지난 86년 5월에 입사, 현재 18 개월된 이들과 날씬한(?) 애기쁨과 바람직하게 허무하루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획부에서 중간 다리역을 담당, 윤활유로서 배달개념은 각종 세미나를 준비하고 문제 농장을 방문, 해결사 노릇도 해야 하는 등 다소 업무가 많게 느껴졌는데 놀랍 슬기영빛이다.
여러분부터 애완동물을 좋아했고 장례회방을 남(애완동물 또는 가축)을 도우며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서게 된 동기라고.
(주)동방 기획부의 4인방

박정호.
88년 수의학과를 졸업하면서
(주)동방과 인연을 맺은 그는 기
획부에서의 막내로서 꽤 필요하면
서도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지식한 (?)과 둘다리도 두
드려 보고 전너가라는 외벽함을 기
초로 생활하는 성실주의자.

 각종 자료의 번역, 발제, 정리,
제작 등을 주로 담당하는데 필요
한 수의·축산분야의 관련서적이
사내에 고루 갖추고 있어 무척 도
움이 된다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누구나 그렇듯이 박정호께서는 양
축가를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한
후 채방을 알려줘 집병치료로 성
공담을 들려주며 가장 보람을 느
긴다는 말에서 소박한 마음을 엿
볼 수 있었다.

김유선.
그녀는 기획부의 세 사람이 대외
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에서부터 모든 일을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목록
히 내조하는 숨은 일꾼이다.

 gọn은 인, 귀찮은 일도 가리지
않고 늘어 옷으로서 줄길게 임하
는 그녀를 처음 대한 순간 영락없
이 부정직 빼어느리같이였다.

눈썹이 바람에 휘날리도록 전국
각지를 누비며 돌아 다니는 부원
들이 최신 정보, 정확한 자료를
양축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앞
에서 꽃아 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에 조금도 인식함이 없이 최선
을 다하는 모습에서 수퍼우먼임을
심감하게했다.

이처럼 (주)동방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부는 전직원이 ‘하
나’가 되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기득히 하며 우리의 축산업 발전
및 자기 회사의 발전을 위한 앞장
이가 되기 위해 하루를 숨을 내쉬
다니 아라 48시간으로 채겨서
워여가고 있는 것이다.

사종일관 뜨레지 않는 부서(그래서 모두들 놀이 큰가보
다) 모두가 제주군민 못진 사람
들.

각 책상마다 놓여진 화초가 무
려무라 쏟쳐(?)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희망찬 미래가 곧 다
가올 것같이 여겨졌다.

불확실한 미래의 개척을 위해
서로의 손을 꼭게 잡으며 헌신한
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가능성’을
얻볼 수 있었다.  "77"